

내고장 일꾼



**강인규** 나주시장은 1일 오후 2시 시청 이화실에서 열리는 제3차 마한문화축제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김산 무안군**수는 1일 오전 9시 30분 군수실에서 열리는 2019년 주요업무보고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한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1일 오전 8시 30분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한다.

# “희귀 앵무새 보러 장성으로 오세요”

오는 28일까지 황룡강변 ‘앵무새 특별관’ 운영  
멸종위기종 등 5,800마리...노란꽃잔치도 관람

세계적으로 희귀한 앵무새들을 구경할 수 있는 앵무새 체험관이 장성 황룡강변에 문을 연다.

장성군은 장성의 이색 체험 동물원인 ‘정글주에바나나’의 도움을 받아 오는 28일까지 황룡강변에 있는 공설 운동장에 앵무새 체험관을 운영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까지 관람할 수 있는 이번 체험관에선 앵무새 80종 5,800마리를 구경할 수 있다.

또한 닥터피쉬, 슈가글라이더, 사막여우, 이구아나, 육지거북 등 희귀 동물 12종도 볼 수 있다. 입장료는 4,000원이다.

지난 4월 문을 연 정글주에바나나는 세상의 모든 앵무새를 모은 곳이다. 앵무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희귀하고 다양한 앵무새를 보유하고 있다. 이곳에 있는 히아신스마카오는 멸종위기동물 1급 종으로 전 세계적으로 1,000여 마리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다. 회색 앵무, 스칼렛마카오, 더블멜로우헤드 아마존 등 다양한 1급 정도 직접 관람할 수 있다. 희귀 앵무새를 직접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먹이 주기, 교감하기 등 다양하고 즐거운 체험을 만끽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말에 수백명의 관람객이 몰리는 등 장성의 명소로 급부상했다.

정용석 정글주에바나나 대표는 “삼서면 태산로에 있는 정글주에바나나를 앵무새 체험관에 고스란히 재현했다”면서 “우리 체험관이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의 명물로 자리를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장성의 이색 체험 동물원인 ‘정글주에바나나’의 도움을 받아 오는 28일까지 황룡강변에 있는 공설운동장에 앵무새 체험관을 운영한다. /장성군제공

장성군은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기간에 ‘컬러(Color), 빛(Light), 이야기(Story)’를 주제로, ‘가고 싶은 옐로우시티! 걷고 싶은 황룡강!’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황룡강을

10억송이 꽃이 만발한 꽃강으로 조성한다. 20만 평방미터(약 6만평)의 강변에 백일홍, 황화코스모스, 해바라기, 코스모스, 핑크플리 등의 초화를 식재해 황룡강을 전국에서 가장 길고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으로 만든다. 지난해 축제 때는 “평생 볼 꽃을 다 볼 수 있다”는 입소문 덕분에 장성 축제 최초로 100만 관람객 시대를 열어 화제를 모았다. /장성=전일용기자

장흥 읍면 청사 태양광 공모 확정

장흥군 장평면과 안양면 행정복지센터 청사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첨단시설을 갖춘 청사로 재탄생된다.

장흥군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19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공모에 확정됨에 따라 읍면 청사에는 최초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공모사업은 국비 3,600만원을 지원받고 군비 4,400만원을 투입해 15kW 용량의 태양광발전시설을 각각 설치할 계획이다. /장흥=이옥현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본사 010-4601-5323
- 나주 010-5617-2605
- 010-3713-7458
- 함평 010-3773-2522
- 영광 010-8666-2882
- 화순 010-3666-5888
- 장성 010-3666-1300
- 담양 010-4154-8277
- 장흥 010-3613-6114

## 나주 ‘천연염색 데이’ 지정 추진

오는 17일 축구 선포식  
관련산업 활성화 도모

국내 천연염색 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 ‘천연염색 데이’ 지정 추진에 나섰다.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은 천연염색 보급과 친환경 섬유 확산, 관련 업계 활성화를 위해 ‘천연염색 데이’ 지정을 추진 중이다.

재단은 오는 17일 ‘청출어람 2018 나주’ 행사 때 ‘천연염색 데이’ 지정에 동참하는 한국천연염색지도사업회와 종사자, 기관 등과 ‘천연염색 데이’ 지정을 촉구하는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쪽, 치자 등 천연 염색 재료를 이용해 무명천 등 천연 섬유에 색을 입히는 전통염색기법인 천연염색은 친환경적 측면에서 생산과 이용 규모가 커질수록 삶의 질 향상과 지구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은 오는 17일 ‘천연염색 데이’ 지정 선포식을 가진다. 사진은 재단 전경. /나주천연염색문화재단 제공

있다. 이처럼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천연염색 산업화’는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걸두고 있다.

천연염색 공방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천연염색 소재를 찾는 소비자의 폭이 넓지 못해 수익모델 창출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 극복을 위해 재단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천연염색 데이’로 지정해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재단은 ‘천연염색 데이’를 통해 관련 종사자들이 스스로 천연염색 옷을 입고, 할인행사나 이벤트 실시 등을 통해 천연염색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나주=이재순 기자

## 화순 능주면 하수관로 정비 추진

4억원 투입 내년 상반기 완료

화순군은 능주면 내리의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사업비 4억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능주면 내리는 277가구에 약 50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하수관로가 미비로 정화조 관리 및 악취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많았으며 석고천 상류 마을로 썩어 하천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

다. 내년 상반기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완료 할 수 있게돼 하수처리구역 편입에 따른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관계자는 “능주면 내리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더불어 국고보조사업으로 화순을 받고·만연지구, 도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순=서호령기자

## 함평성심병원-지역아동연합회 MOU

함평성심병원과함평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의료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함평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 협약에 따라 관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296명에게 결핵·B형간염 검사를 포함한 12종의 건강검진비(본인부담금 1만원 제외)를 지원하게

된다. 또 외래진료비와 비급여 항목 진료비, 입원비를 20% 할인해주고, 아동복지교사를 포함한 센터 종사자 47명에게도 외래진료비와 입원비를 10% 할인해 주는 등 의료서비스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대호병원장은 “군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공공의료정책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윤예중 기자

**공기청정기와 블루투스 스피커가 하나로!**

최저만 원에 스테레오 공기청정기 mini air DK

www.e-dk.co.kr

**제습기 이젠 사계절 필수품입니다.**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담당) 1544-1154